

## 한겨레

2020년 05월 27일 (수)  
종합 06면



**비무장지대 조사단 발대식** 26일 경기도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열린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실태조사단 발대식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구진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를 두고 앉아 있다. 문화재청과 경기도, 강원도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재태화를 위해 문화 및 자연유산 조사를 이년부터 1년 동안 진행한다. 파주/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2020년 05월 27일 (수)  
수도권 28면



### 미지의 땅 DMZ 문화재 실태조사

26일 경기도 파주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열린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실태조사단 발대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구진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를 두고 앉아 있다. 문화재청과 경기도, 강원도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재태화를 위해 문화 및 자연유산 조사를 이년부터 1년 동안 진행한다. /연합

## DMZ를 세계 평화의 공간으로 가꾸자

어제부터 경기도·강원도·문화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문화·자연유산 실태조사에 대한 관련 학계의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 이번 실태조사는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이 합의한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 11일 DMZ 관련 경기도-문화재청-강원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경기도(경기문화재단, 파주시)·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강원도(강원문화재연구소, 고성군)를 중심으로 문화·자연·세계유산 등 분야별 연구자 55명이 참여, 파주 대성동마을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앞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태봉철원성,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등과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건봉산·향로봉 천연보호구역 등 40여 곳에서 1년간 종합조사가 실시된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생긴 DMZ는 지난 70여 년 동안 분단과 대립, 갈등의 상징이었는데 DMZ 전역에 걸친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종합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드러날지 가슴이 설렌다.

역대 정부의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정책도 다양했다. 노태우 정부의 'DMZ 내 평화시 건설 구상'을 비롯, 김영삼 정부의

'DMZ 자연공원', 노무현 정부의 'DMZ 평화공원', 이명박 정부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이 그것이다.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이어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군사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며, JSA 비무장화, DMZ 내 GP 시범철수, DMZ 내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등의 조치도 이어졌다. 이에 더해 문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했다. DMZ를 진정한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DMZ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 남북공동등재도 DMZ 국제평화지대화 제안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다.

앞으로 복측과 협의, 구체적인 역사유적 발굴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학계에서는 DMZ 내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 많은 문화유적과 유물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궁예도성과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구석기 유적 여부, 병자호란 전사자 유해가 묻힌 전골총(戰骨塚)등에 관심이 쏠린다. 습지, 희귀식물군 서식지, 야생동물 등 다양하고 중요한 자연생태지역도 존재한다. 남북이 힘을 합쳐 DMZ가 세계적인 평화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